

지역 소식 통

정읍시, 한·육우·젖소

스트레스완화제 긴급 공급

정읍시가 2억 6000만원을 투입해 한우·육우와 젖소 사육농가 849곳에 폭염 피해 예방용 스트레스 완화제를 무상 공급한다. 이번 지원은 장기간 이어지는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를 예방하고 축산농가가 안정적인 사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농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없다. 시는 이를 통해 가축 폐사와 생산성 저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한우·육우 사육농가 792곳과 젖소 사육농가 57곳 등 모두 849곳이다. 시는 농가에 완화제를 신속히 공급해 폭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농기센터, 벼멸구

흑명나방 방제 당부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정읍 지역 논에서 흑명나방이 일부 확인되고 도내에서 벼멸구가 발견됨에 따라 수확기까지 논을 자주 살피고 적기에 방제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전북특별자치도 합동 예찰 결과, 8월 초 도내에서 날개가 짧은 벼멸구 성충과 어린 벌레인 약충이 확인됐다. 지난 6월 말부터 7월 사이 중국 등지에서 기류를 타고 들어온 개체가 높은 기온 속에서 증식한 것으로 추정된다. 벼멸구가 확인되면 약제가 벗대 아랫부분까지 충분히 닿도록 꼼꼼하게 뿌려야 한다. 같은 약제를 계속 사용하면 기보다 약효가 나타나는 방식이 다른 등록 약제를 번갈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흑명나방은 성충이 들어온 뒤 7~10일이 지나 어린 애벌레가 있을 말고 들어가기 전에 방제해야 효과가 크다. 일조량 안으로 잘 스며드는 등록 약제를 골라 빠짐없이 살포해야 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의견 수렴

부안권역 산업용지 확대 · 농생명용지 대체부지 재검토 등 군민 목소리 잇따라

부안군은 지난 25일 부안예술회관에서 새만금개발청 주최로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찾아가는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새만금 개발방식을 민간투자 중심에서 공공주도 방식으로 전환하고 오는 2035년까지 부지 조성을 추진하는 방향과 함께 용지체계 개편, 산업·관광·에너지 등 권역별 개발방향, 재생에너지 확대 및 광역 기반시설 구축계획 등이 설명됐다. 특히 이번 변경안에는 그동안 산업용지가 전무했던 부안권역에 R4 일원 약 142만평 규모의 산업용지를 조성하고 수소 및 신재생에너지와 연계한 미래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향이 제시돼 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주민들은 부안권역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제시된 산업용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장기간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돼

온 관광레저용지가 실제 개발로 이어지지 못한 만큼 R1~R4 일원을 산업용지로 확대 전환하거나 산업·관광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복합개발용지로 변경해 줄 것을 강하게 건의했다. 또 전략적 유보지에 대해서도 단순히 미래 수요에 대비해 남겨두기보다는 향후 기업 투자와 산업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기본계획에 담아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농생명용지 3공구의 용도 전환에 따른 대체부지 약 93만평을 부안권역에 배치한 계획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졌다. 주민들은 이미 부안권역에 대규모 농생명용지가 조성돼 있는 상황에서 타 지역 개발에 따른 대체용지를 다시 부안에 배치하는 것은 지역 간 형평성에 맞지 않자며 배치계획을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해당 대체부지를 농생명용지로 추가 지정하기보다 이번 변경안에 반영된 농식품산업용지와 연계해 식품산업단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대안도 제시됐다. 이를 통해 농식품산업의 집적화를 도모하고 부안권역의 산업기능과 기업 유치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주민들은 산업용지 확대와 함께 기업 유치를 뒷받침할 전력·용수 등 필수 기반시설의 공급계획도 적기에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새만금개발청 측은 구체적인 변전소 위치와 용량 등은 향후 개발계획 단계에서 구체화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설명회에서 나온 주민 의견을 검토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반평여행, 지역경제에 활력

관광객 체류 증가 ·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 톡톡'

고창군 '고창반평여행'이 관광객의 체류를 늘리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등 고창관광과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26일 군에 따르면, 반평여행은 고창군이 전북에서 유일하게 문체부의 '지역사랑 휴가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시행중이다. 지난 4월부터 시작돼 모집 회차마다 조기마감이 이어지며 현재까지 9,200여 명이 신청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여행을 마치고 정산 절차를 거친 6,400여 명의 관광객에게 총 5억3천여만 원의 모바일 고창사랑상품권을 발급했다. 특히 숙박업 이용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관광객의 숙박이 음식점과 카페, 관광·체험시설 등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면서 기존의 단순 방문·경유형 관광에서 머무르고 소비하는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고 있



다. 고창군은 여행기간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사업 효과 지역경제로 지속될 수 있도록 9월부터 12월까지 환급금 소비 활성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관광객에게 지급된 환급금은 고창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고창 재방문을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군은 환급금 사용 편의와 사용처를 확대해 관광객의 재소비·재방문이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관광소비 선순환 구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지황 4년 결실... 국가중요농업유산 넘어 약용치유산업으로

정읍시,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 농생명산업지구 예비지구 선정

정읍시가 지난 4년간 정읍지황의 생산·가공·유통 기반을 다져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과 농생명산업지구 예비지구 선정 성과를 거두고 약용치유산업 육성에 속도를 낸다. 시는 지난 25일 '2026년 제2차 정읍지황 농촌융복합사업 운영위원회'를 열어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정읍지황 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행정과 농업계, 산업계, 학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11명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지난 4년간의 사업 추진 결과를 살펴보고 앞으로 연계할 후속사업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사업단은 정읍지황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자원과 연계하기 위해 재배농가와 관계 인력의 역량 강화, 정읍지황 홍보·관측, 쌍화차거리 활성화, 농촌체험관광 개발·운영, 약용작물 제품 개발과 기술 이전, 정읍지황 상표 개발 등을 추진했다. 특히 생산·가공·유통 기반을 강화



하고 쌍화차와 농촌체험관광을 연계해 지황의 활용 범위를 넓히는 데 힘썼다. 다양한 홍보와 상품 개발을 통해 정읍지황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도 주력했다. 그 결과 2025년 '정읍 지황 농업시스템'이 국가중요농업유산 제20호로 지정됐으며, '약용치유 융복합지구'가 농생명산업지구 예비지구로 선정됐다. 정읍지황이 지닌 농업·문화적 가치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농업유산 발굴 및 보전사업'과 '농생명산업지구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유호연 사업단장은 "정읍지황이 지역 농업의 교두보가 되며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고 농가와 기업, 관광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치유산업의 중심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행정협의회 초대 수석 부회장 선출

부안군은 전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을 보유·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뜻을 모아 출범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행정협의회의 초대 수석 부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행정협의회는 지난 25일 충북 단양군 소노벨 단양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협의회 규약 제정과 임원진 선출을 완료하며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날 총회에서 회장으로는 박용선 포항시장, 수석 부회장으로는 권익현 부안군수가 선출돼 협의회를 함께 이끌어갈게 됐다. 이번 행정협의회에는 전북 서해안 세계지질공원의 부안군과 고창군을 비롯해 경북 동해안(포항·경주·영덕·울진), 한탄강(포천·연천·철원), 청송군, 단양군 등 전국 11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한다. 그동안 국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보유 지자체들은 각 지역의 뛰어난 지질유산을 중심으로 공원을 독자 운영해 왔으나 운영재원과 전문인력 확보, 관련 법·제도 개선 등 공동 현안에 대한 전국 단위의 공동 대응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출범한 행정협의회는 앞으로 세계지질공원 운영 기준 마련 및 법·제도 개선을 위한 대정부 공동건의, 국비 확보 및 전문인력 양성 협력, 지질관광·생태교육 분야 공동 사업 발굴, 국내외 지질공원 간 네트워크 및 교류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중심인 부안군은 체석강, 적벽강, 솔섬, 대월습곡 등 뛰어난 지질명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질유산의 보존뿐만 아니라 이를 연계한 지역 관광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앞장서 왔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CCTV통합관제센터, 요원들 신속 대응 '눈길'

이승주 요원, 7~8월 연속 성과에 고창경찰서장 감사장 수여

고창군 CCTV통합관제센터 소속 관제요원들이 7~8월 연속 실종자발견, 차량탈이법 추적 등에 역량을 뽐내며 고창경찰서장 감사장을 수상했다. 18일 고창군 CCTV통합관제센터 이승주 관제요원이 감사장을 수상했다. 이 요원은 최근 발생한 차량탈이 사

건에서 CCTV 영상을 통해 이동 동선을 끈질기게 추적해 용의자의 도주 경로를 특정하고 담당 경찰서에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했다. 이 같은 공조 덕분에 경찰은 단시간 내 용의자를 특정해 검거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앞서 지난 7월20일에도 강희망, 임미경, 김태호 관제요원 감사장을 받았다. 강희망 요원은 지체장애인 실종 사건, 임미경·김태호 요원은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이 실종된 사건에서 이동 경로를 신속히 포착하고 경찰에 즉각 공유함으로써 실종자를 무사히 발견하는 데 결정적 도움을 주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